

“죽음 이후의 세계”

눅 16:19-31

지난 주에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2명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사고를 접하며 항상 생각하는 것은 “과연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 얼마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죽음을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현실 속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무신론자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써 인생이 끝난다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죽고 나면 제 2 부의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세상에 영원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자도 권력자도 그 누구든지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결국에는 전세집 같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2. 나사로의 죽음

어느 날 나사로는 세상의 모든 가난과 고통을 뒤로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례는 초라했고 거적에 둘둘 말려서 지게에 지어 공동묘지 한구석에 아무렇게나 묻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고 하지 않고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리어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에 들어갔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천국 체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후 12:4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체험하고 난 후 그곳이 너무 좋은 나머지 **빌 1:23 말씀에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거지 나사로는 이세상에 살 때 가난하고 병들어 비참

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죽어 낙원에 이른 것입니다.

3. 부자의 죽음

그 후에 세월이 흘러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거창했습니다. 명당에다 묘를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자가 무덤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다” 고 표현합니다. 음부란 마지막 심판 때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들어갈 무저갱의 대합실입니다. 부자는 바로 죽은 사람들 중에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모여 있는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 무저갱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서 2000년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를 쫓아내시자 눅 8:31에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 한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와 주를 배반한 사람들을 불과 유황이 타는 무저갱으로 영원히 던져 버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4. 죽음 건너편의 실상

사람들은 죽고 나면 모든 것을 다 잊고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너무도 생생히 죽음 저편의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인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부자는 음부로, 나사로는 낙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지명되어 있음을 볼 때 인격을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서 서로 누군지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명도 유지됩니다. 부자는 음부의 괴로움과 나사로는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보면 느낌과 희로애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에서는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부자의 간구처럼 거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죽고 나면 기회가 없습니다.

5. 죽음을 준비하는 삶

“**히 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어 음부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여 이 땅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느 시기이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회개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을 회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마음 대로 사는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여 살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선교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좀더 원색적인 표현을 하면 결혼도 사업도 건강도 그 모든 것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에는 24,000여 종족이 살고 있는데 6,000여 종족은 복음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체 예산의 5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합니다. 어떤 분은 “왜 그렇게 아끼면서 선교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6.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 이후 길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지를 알지 못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다가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길을 알려주신 분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길이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용서와 의를 얻는 길을 찾으며 거룩함과 성령충만의 길을 찾으며 치료와 건강의 길을 찾으며 축복과 형통의 길을 찾으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다 길을 잃어 버린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7.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이시다.

요즘은 종교화합이라는 미명아래 종교 다원주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란 근원적 진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철학도 윤리도 도덕도 사상도 시대와 시대의 풍조에 따라 변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진리인 것은 그것이 영원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상천하에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남아있는 진리는 예수님 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마호메트는 나이 60세에 한 여인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0세에 사약을 먹고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나이 80세에 잔치집에 가서 음식먹고 식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계 성인이요, 종교의 창시자였던 이들이었지만 결국 죽음 앞에는 무릎 꿇고 죽고 난 다음 다시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는 33세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었다가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행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여겨지는 이세상은 잠시 살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의 준비과정에 불과 합니다. 그러므로 이세상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다가 천국에 입성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죽음 이후의 당신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 소망의 관점에서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나누어 주신대로 믿고 계십니까?)
3. (위의 질문에 이어서)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현실 속에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4. 죽음을 준비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내 삶 가운데 균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흔드는 요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5. 10월 20일에 있는 '사랑나눔축제'를 위한 VIP(전도대상자)를 기록하고,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